

“국가통제와 폭력 관심에 연극 올리고 서점 열어”

2017 文化로 물들다

③ ‘소년의 서(書)’ 서점 연 연극인 임인자씨

현책 80% 새책 20%...인문사회서적 판매
“오월 등 ‘광주’ 관련 책 모으기 힘쓸 것”

서울 오가며 블랙리스트 ‘검열 백서’ 제작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논의 공간 됐으면”



광주극장 옆 골목에 문을 연 서점 ‘소년의 서(書)’ 주인장 임인자씨.

서점으로 들어서니 주인장은 책 정리에 정신이 없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은 서 연출가가 보내 준 책들이었다. ‘월간미술’을 비롯해 ‘스타니슬라프스키 연가론’, 연극 개론 등 기저귀 박스에 가득 보내 준 책은 ‘연극’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았다.

“연출님이 보내 준 책 중에 연극 관련 희귀본들이 많아요. 서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챙겨 보낸 것들이지요. 절판된 책들은 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책을 보내주셨는데 누군가의 개인 ‘서가(書架)’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책들입니다. 모두 감사하죠.”

그녀는 방금 전, 서울에서 온 손님이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현책 한권을 사갔으며 신기해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광주극장 옆 골목에 자리한 서점 ‘소년의 서(書)’는 연극 연출가이자, 독립기획자로 활동중인 임인

자씨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간간히 책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식 오픈식은 하지 못했다. 서울을 오가는 시간이 많아서다. 지난 한 해 문화계를 뜨겁게 달군 검열 문제와 이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불거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문제 제기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온 그녀는 올해도 ‘검열 백서’ 제작에 참여중이다. 또 서울 광화문에 들어선 ‘광장극장 블랙텐트’에도 운영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소년의 서’는 인문사회과학예술 서적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녹색이 인상적인 서점 상징 마크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형상화해 그녀가 직접 디자인했다. 판매하는 책은 현책이 80%, 새 책이 20% 정도다. 현책은 임씨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기반으로 계림동 현책방 등을 돌아다니며 직접 구입한 책들로 희귀본들도 많다. 일부는

‘서점에 꼭 어울리는 귀한 책’이라며 누군가가 가져다 주기도 했다.

연극, 다원예술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던 터라 관련 책들이 많고 오월을 비롯해 광주의 역사 등 ‘광주’ 관련 책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 중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교육대에 다니다 다시 중앙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임씨는 2010년~2016년까지 ‘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또 서울연극협회가 주는 젊은 연극인상도 받았다.

임씨는 지난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천동 시민아파트, 전일빌딩 등 광주의 오래된 공간들에 주목한 ‘도시 횡단프로젝트’ 예술감독을 맡으며 광주로 돌아왔다. 지난해 열린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 작가와 협업해 광주시 북구 한세봉 지역 주민들

과 함께 ‘도룡뇽의 비탄’을 제작하기도 했다.

서점에서 유독 눈에 띄는 책이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계자인 한중선씨가 집필한 ‘살아남은 아이’다. 형제 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다.

이 책은 그녀가 서점을 열게 된 이유가 됐다. 서점 한 칸 작은 갤러리에는 한중선씨의 그림이 전시돼 있다. 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시절 ‘살아남은 아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초청했던 임씨는 국가 폭력과 통제 사회, 생명·생태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다.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등은 자주 들어다본 책이다. 또 하나 그녀가 관심을 갖는 건 ‘공간’과 ‘공동체’로 관련 북 리스트도 갖춰두었다. 그녀는 ‘제도에서 밀려나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발언하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다. 그제 바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점을 오픈한 이유도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공간을 꿈꾸어서다.

임씨는 지난해 서울 대학로에서 검열 사태에 맞선 릴레이 연극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에서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다룬 모노 드라마 ‘시민 L’을 공연하기도 했다.

올해는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로 X포럼이 진행되는 ‘검열백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모두 ‘기록해둘’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씨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터라 서점은 당분간 수~금요일(오후 1시~8시) 주 3일 문을 연다. 방문하기 전 전화로 개점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문의 010-3256-2625.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바다와 대지’

침묵의 땅, 갯벌

담양 대담미술관 3월27일까지 문인환 개인전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극사실주의 기법을 펼치고 있는 문인환 작가가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3월27일까지 ‘침묵의 땅’(One’s Reason for Being)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갯벌을 담은 유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갯벌을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이 시작되는 곳이자 산란과 생육장소로 본다. 특히 물에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걸러 바다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자연정화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

전시 출품작 ‘바다와 대지’는 가까이서 본 갯벌을 묘사했다. 사람 등 생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갯벌 안에서는 해양생물들이 살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 중이다..

멀리 보이는 섬, 하늘에 떠있는 구름 등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와 동기를 이야기한다.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문씨는 개인전을 18회 열었고 쾰른아트페어, 뉴욕아트페어, 북경아트페어, 싱가포르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4년 시립미술관이 개최한 ‘실존과 허상’전에 참여하며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61-381-00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에티오피아의 초대’ 저자 윤오순씨 초청 북콘서트

13일 동명동 감성소통홀

광주 동명동에 자리한 감성소통홀 ‘천정자리’가 13일 오후 7시30분 ‘커피와 인류의 요람, 에티오피아의 초대’의 저자 윤오순(사진)씨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연다.

윤씨는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에티오피아 커피투어리즘을 주제로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과에서 석사를, 영국 엑서터대학에서 지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연, 축제, 관광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기획자,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는 전공인 ‘커피 투어리즘’ 현지 조사를 위해 에티오피아에 체류하고 있다.



이번 북콘서트에 서는 에티오피아에 가는 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 여행 정보를 비롯해 문화, 음식,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 생산, 커피문화 등 커피 이야기와 맥주, 와인 등 음료에 대한 정보도 들려준다.

윤 박사의 오랜 친구인 ‘천정자리’ 운영자 수안 스님은 노래 공연을 더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에티오피아 원두커피(100g)를 무료로 증정한다. 문의 062-227-77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인 ‘소년의 서(書)’ 전경.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